

# 진지희 “괴롭히는 장면 연기지만 심적으로 어렵고 불편”

‘펜트하우스’ 제니役... 시즌1 종영 화상 인터뷰

‘빵꾸똥꾸’ 하이킥 아역부터 어느새 19년 차

“진짜 닮았다” 할 정도로 신은경과 모녀 케미

“시즌2 촬영중...제니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

“새로운 ‘제니’로 ‘펜트하우스’ 시즌2로 돌아올게요. 시즌1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 더 성숙해지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배우 진지희가 ‘펜트하우스’ 시즌1을 종영하며 “재미있는 드라마 한편이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청률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 못 했다. 너무 놀랐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시즌2 촬영을 하고 있는데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지희는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시즌1 종영 인터뷰에서 “펜트하우스”는 제게 큰 영향을 끼쳤고 전작보다 더 성장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작품이라며 “시즌2에서 제니가 또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극 중 ‘강마리’(신은경)의 외동딸 ‘유제니’ 역을 맡았다. 청아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하지만 실력은 없고 욕심만 있는 씩씩 캐릭터다. 헤라펠리스에 살면서 돈 있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극 중 헤라펠리스 아이들과 함께 ‘민실아’(조수민)와 ‘베로나’(김현수)를 괴롭히며 티격태격한다.

**신은경 딸 ‘유제니’ 역... ‘감정 표현 솔직한 캐릭터’**

진지희는 “제니가 단순한 면이 있다. 단순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아이”라고 캐릭터를 설명했다.

“존데레적인 면이 있어서 화를 내도 너무 악역처럼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인 강마리가 제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받은 모습이 잘 드러나길 바랐죠. 중3 때부터 고등학교 생으로 커가는 모습도 있어서 체중 관리나 의상 등 성숙해지는 모습도 담으려고 했어요.”

유제니는 ‘오윤희’(유진)의 딸 ‘베로나’를 괴롭혔지만, 최종회에서 홀로 남은 베로나에

게 샌드위치를 건네는 모습을 보여 궁금증도 불렀다.

진지희는 “제니가 악행을 펼쳤지만 순수한 마음도 있다. 이전 화에서 로나가 쓰레기 더미에 있는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간 괴롭힌 반성의 마음도 생긴 것 같다”며 “사실 후반부에 로나를 쫓아가는 장면이 잘 드러나려면 초반에 로나를 짓밟고 못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극 중 누군가를 괴롭히는 장면은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전했다. 진지희는 “때리거나 미는 장면이 있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며 “연기지만 항상 미안했고, 심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불편했다”고 돌아왔다.

진지희는 지난 2009년 방송된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빵꾸똥꾸’ 유행어를 남긴 ‘해리’ 역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드라마에서 맡은 제니에서 해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한 작품의 캐릭터를 고를 때 하이킥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시청자들은 해리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제니가 해리랑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니는 자기 나름대로 화를 내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있고, 이걸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었죠. 후반부로 갈수록 제니의 감정 변화도 점점 달라져요. 제니가 걸으로는 악동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이 많고 그래서 더 애착이 가요.”

**신은경과 짝 모녀 케미... 탐나는 역할은 김소연**

엄마 강마리 역의 신은경과는 모녀 케미로 극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 덕분에 좋은 모녀 케미가 나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선배님께서 제 연기를 집중해서 봐주시고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어요. 시청자들도 저희 모녀가 닮기도 했고 진짜 딸과 엄마 같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 덕분에요.”

진지희는 모녀 연기를 위해 신은경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다. “감독님이 헤라펠리스 아이들은 헤라펠리스 어른들의 데칼코마니처럼, 미니미 버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은경 선배님의 영상을 많이 찾아봤죠. 첫 대본리딩 때 선배님의 호흡을 주의 깊게 봤고, 연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많이 따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극 중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로는 김소연이 맡은 ‘천서진’을 꼽았다. 가장 소름 돋았던 신으로도 김소연이 광기를 보이며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떠올렸다.

“선배님들 역할은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은데, 그중 김소연 선배님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연기이기도 하고, 악랄한 악녀의 모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래 연기자들과의 호흡도 좋았다고 전했다. 진지희는 “호흡이 중요했고, 감독님도 악동처럼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며 “다들 열정을 대단했다. 사이도 좋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서 더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아역 이미지, 연기 변신 고민 NO... 다양한 캐릭터 도전”**

아역 연기를 오래 한 만큼, 다시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데 대한 부담은 없었을까. 올해 23살인 진지희는 “부담은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다시 교복을 입고 연기하기가 재미있었다”며 “고등학생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안이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즐기면서 했다”고 웃었다.

‘하이킥’의 강렬한 인상 탓에 연기 변신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 진지희는 “연기 변신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캐릭터의 매력으로 작품을 고른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작품과 다양한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연기 변신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니는 그만큼 사랑스럽고,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도 제 관점에서는 변신했다고 생각해요.”

‘펜트하우스’는 다양한 인간의 욕망을 담았다. 진지희는 “어떤 욕심이 크냐는 물음에 ‘연기에 대한 욕심이 제일 크다’고 답했다.”



“다른 욕심은 많이 없는데, 연기는 누구보다도 욕심이 강해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고 더 실감 나게, 잘 표현하고 싶죠.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연기하려고 노력해요.”

지난 2003년 KBS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서 아역으로 데뷔해 어느새 19년차가 됐다. 진지희는 “아역 이미지를 벗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예전에 했지만, 벗어나는 것보다 지금은 제 역

량에 맞는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항상 도전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김소연 선배님처럼 차가운 악녀 역할도 해보고 싶고 수사물에서 형사로 걸크리시 면모도 보여주고 싶죠. 앞으로 더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고, 항상 도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올해도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 이승기 측 “악플러 3차 추가 고소... 합의·선처 일절 없다”

**“형사책임·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적인 모든 책임 물을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악플러에 대한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6일 조만간 악플러에 대한 3차 추가 고소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한 악플러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악플러들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라며 “9월 접수한 2차 고소 사건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신원이 특정된 악플러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 접수했고 이미 고소인 진술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9월 고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인한 악성 게시물들 중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들을 골라 이에 대한 분류작업을 거쳐 악플러 목록을 추가 작성해 오는 15일 전까지 3차로 추가 고소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방영을 앞두고 있는 tvN 드라마 ‘마우스’의 방영 중에 악플러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그 기간 클린 인터넷 센터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속사는 “당사는 익명성과 VPN 등

## 에픽하이, 씨엘·지코와 첫 협업... ‘로사리오’

**오는 18일 오후 6시 발매**

합창그룹 ‘에픽하이(EPIK HIGH)’가 가수 씨엘(CL), 프로듀서 겸 래퍼 지코(ZICO)와 첫 협업한다. 7일 소속사 아우즈에 따르면, 씨엘과 지코는 에픽하이와 오는 18일 오후 6시 발매하는 열 번째 정규앨범 ‘에픽 하이 이즈 히어 상(Epik High Is Here 상)’의 타이틀곡 ‘로사리오(ROSARIO)’를 피쳐링한다. 에픽하이는 다양한 가수들과 협업해왔는데, 씨엘과 지코의 콜라보레이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씨엘과는 YG엔터테인먼트에 한때 함께 몸 담았다. 지코는 대중음악계에서 협업 1순위로 꼽히는 뮤지션이다. 에픽하이는 이번 앨범에 피쳐링으로 힘을 보탠 다른 뮤지션들도 추가로 공개한다. 한편, ‘상(上)’과 ‘하(下)’ 2CD로 구성된 에픽하이의 정규 10집 ‘에픽 하이 이즈 히어(Epik High Is Here)’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정규 9집 ‘위브 던 섬심 원더풀(WE’VE DONE SOMETHING WONDERFUL)’ 이후 3년 3개월 만에 발매하는 정규앨범이다. ‘상’에는 ‘로사리오’를 비롯 ‘데스 제로’ 총 10개 트랙이 수록됐다.

## 니쥬, 日 오리콘 주간차트 또 정상... ‘스텝 앤드 어 스텝’

**‘여성 가수 데뷔 앨범 기준 역대 2위’ 기록**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니쥬(NiziU)’가 일본 데뷔 앨범으로 다시 한번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7일 오리콘에 따르면, 니쥬가 지난달 2일 발표한 데뷔 싱글 ‘스텝 앤드 어 스텝(Step and a step)’은 최신 오리콘 주간차트(2020년 12월28일~2021년 1월3일) 정상에 재등극했다. 이 곡은 발매 첫 주에도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2020년 11월30일~12월6일) 1위를 기록했는데, 4주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른 것이다. 특히 이번 싱글은 발매 첫 주에만 31만1719 포인트를 달성하며 ‘여성 가수 데뷔 앨범 기준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데뷔 음반으로만 총 누적 판매 수 39만 2000장을 넘어섰다. 지난 6월 공개한 프리 데뷔곡 ‘메이크 유 해피’ 역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뽐내고 있다. 니쥬가 지난해 말 NHK ‘홍백가합전’에 첫 출연해 이 곡을 선보이며 역주행 중이다. 11월 자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순위 5위, 주간 디지털 싱글 차트 9위 등 상승세를 기록했다. 또한 니쥬는 오리콘이 5일 발표한 제53회 오리콘 연간 랭킹 중 ‘2020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신인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리며 남다른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 2PM 닉쿤, 中 웨이보 ‘2020 인기 해외스타’ 1위

그룹 ‘2PM’ 닉쿤이 중국에서 인기를 확신했다. 6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닉쿤은 현지 대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웨이보가 꼽은 ‘2020 인기 해외스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작년 한해 동안 해당 플랫폼에서의 유입량과 활동량 등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해외 아티스트 인기 순위를 매긴 랭킹에서 정상에 올랐다. 특히 같은 해 9월부터 12월

까지 웨이보 한류 차트 월간 랭킹 1위를 수성했다. 국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닉쿤은 연기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며 배우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는 할리우드 영화 ‘홍콩 러브 스토리’에 캐스팅됐다. 중화권 유명 원로배우 증강(Kenneth Tsang)과 넷플릭스 드라마 ‘얼티드 카본’에서 활약한 배우 바이런 만(Byron Mann) 등과 호흡을 맞췄다.